

이혼 치료

Divorce Therapy

安 香 林

(陸軍士官學校 心理學處)

目 次

- | | |
|-----------------|----------------|
| I. 序論 | C. 離婚治療의 現況 |
| A. 離婚治療란? | D. 精神的 離婚의 概念 |
| B. 研究目的 | E. 精神的 離婚의 段階 |
| II. 本論 | F. 建設的 離婚의 基準 |
| A. 離婚治療의 概念 | G. 建設的 離婚의 障礙物 |
| B. 離婚治療의 歷史的 背景 | H. 建設的인 離婚의 戰略 |
| | III. 論議 및 結論 |

I. 序 論

A. 이혼치료란?

이혼은 어린이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부모에게 쓰라린 것이지만 1975年 이후 이혼율이 10年 前보다도 배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외면할 문제가 아닌 듯싶다. 만약 이러한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모든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게 되고 많은 어린이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자의 가족치료를 통한 가족역동에 관한 연구(1975)에서 보면 자녀의 정신병을 일으키는 요인의 하나는 가족 상호작용의 요인 중에서도 부모의 부부불화임을 알았다. 그러므로 자녀의 정신병을 예방하고 자녀를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부부애가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경우에 따라서 부부 불화가 부부 각자 내부의 낮은 자존심 때문에 생기는 갈등의 원인일 수 있는데 결혼 前이라면 결혼 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낮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결혼 後라면 결혼 초기의 간헐적인 가족 치료로써 고통스러워 하는 자녀를 숙출시키지 않도록 예방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가족치료로써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이혼치료를 받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 입장에서 볼 때 부모가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만이 최상의 것은 아니다.

Bowen (1960)은 정신분열증 환자의 양친의 상호관계를 마음의 이혼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음의 이혼이 있는 부모 밑에서 독소를 마셔가며 결국은 정신병에까지 이르느니 보다는 부모의 건설적인 이혼이 자녀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혼치료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혼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거나 어느 한 쪽이 진실로 원하는 경우, 어린이에게 최소한의 피해만 주면서 이혼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치료법의 개념 성공적 이혼의 기준, 장애물 및 치료전략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B. 연구 목적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목표는 둘이다. 하나는 그들의 자녀를 행복한 아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자녀가 이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역군으로 키우는 것이다. (안향림, 1979)

부모는 자녀가 처한 사회구조 내에서 자녀가 당면한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녀에게는 사회는 어렵게 보이기 때문에 성인의 지혜와 인내로 사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건전하게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녀들 보다 충분히 전체로 이해하려 하기에 자녀들의 희망, 소원, 두려움, 고민에 대한 예민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부모들 자신이 자녀의 성격 형성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됨에 따라 부모들은 죄의식과 부담감을 갖게 된다. 모든 어린이는 한 개인이고, 어린이가 처한 환경은 그 개인만이 처한 환경이다. 부모는 단순한 규범이나 잔소리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정상적인 직관을 갖고 자녀를 도와야 한다. 만약에 父母가 책을 보아서든, 직관적으로든, 자녀의 성장상태를 알고 있다면, 또 어린이를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 어린이로서 볼 수 있다면 그런 부모는 자녀가 행복한 어린이로부터 아주 성숙한 성인이 되도록 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부모 자신의 맺힌 한을 풀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사랑이어서도 안되고, 과거 사랑하거나 사랑받은 경험의 재현이어서도 안된다. 또한 자녀를 장난감으로 보아서도 아니되고, 그렇다고 부모 자신과는 아주 무관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무생물 마냥 관계가 초연해서도 안된다. 부모는 자신이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자녀들 한 개인으로서 개성을 존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의 최상의 것, 정서적으로 성숙한

성인의 계산없는 자비로움이다. 이 끝없이 넓은 사랑이 베풀어질 때 부모는 자녀에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나아가서 그가 처한 사회에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역군으로 키울 수 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부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또 나아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이혼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몇 년을 걸치며 진전도 되지 않고, 조화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때 임상에서나 주변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입장에 있는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사회사업가 자신까지도 이에 대한 철학의 빈곤과, 연민스러운 母情이나 父情, 혹은 의존심 때문에 선뜻 치료에 임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혼의 개념, 성공적 이혼의 기준, 장애물 및 치료 전략 등을 이론상으로 고찰하고 연구결과를 살펴 보며 그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本 論

A. 이혼치료의 개념

이혼이라는 문제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혼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Kressel & Deutsch, 1977). 따라서 Kressel과 Deutsch는 이혼의 과정에 대한 심리치료적 응용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21명의 노련한 치료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내용은 치료자들이 보는 이혼과정과 치료의 속성 및 전략에 대한 치료자의 견해였다. 이를 기초로 Kre-

ssel과 Deutsch는 이혼치료의 개념을 설명하고 체계적 연구를 위한 기반을 닦아 놓았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이혼과정에 있는 부부들을 심리적으로 돕는 활동을 묘사할 공통된 언어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Kressel과 Deutsch가 편지상 사용한 견해를 채택하여 이혼치료(divorce therapy)란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B. 이혼치료의 역사적 배경

19세기 초 정신분석 이론에서 부터 시작하여 20세기 후반에는 일반구조이론(general systems theory)이 발전되어 개인보다는 가족 단위를 강조하는 가족치료의 개념이 사회사업의 이론과 실제에 중요한 새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대체로 가족치료는 가족 하나 하나가 모든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고 전가족의 상호작용이 넓은 지역사회기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가족치료의 다섯 가지 학설의 대표적인 學者는 연대순으로 Acherman, Bowen, Jackson, Minuchin, Haley 들 들 수 있겠다. Acherman(1958)의 가족치료 이론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정신분석적인 면을 배경으로 하였으며, Bowen(1960)은 가족치료를 가족의 변화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 가족원 하나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진단된다면 가족원 한 명을 치료하고, 가족을 가능적 단위로 보아, 부부, 부자, 兄弟 등과 같이 짝지워 치료할 수 있고, 친척, 친구, 이웃이 가족 상호작용에 실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얽혀 있다면 집단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가족을 지역사회기관과 관련시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가족구조에, 또 지역 사회구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고 했다. Jackson은 가족원간의 교통에 관심을 둔 교통이론을 내놓았다. 진정한 의사 소통은 양자가 동반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시(message)를 주면 다른 사람은 반응을 보내야 한다. 주제, 상황, 상대, 내용 네 가지中 어느 한 가지를 부정하면 정신분열증 환자가 속출된다고 주장하였다. Minuchin(1974)은 구조이론을 내놓았다. 즉, 가족구조 내에는 개인구조(individual system), 부부구조(marriage system),父子구조(child-parent system), 형제구조(sibling system)가 있는데 이 구조에서 생기는 힘(energy)의 균형이 유지되지 못할 때 가정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병리적 방위기제를 사용하는데 이 대신에 건전한 적응 방법의 발달을 통하여 적응능력을 기르고, 가족 구성원 사이의 대인관계에 병리적 요소를 약화시키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가족 구성원 개인의 무의식 수준에서의 적응 장애를 제거시키고, 가족이 역할과 관계에서 평형 수준을 이루게 하고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가족치료라고 역설한다. 구조주의자들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면서 치료시 가정을 치료자들 포함한 구조로 본다. 그리하여 가족을 부부, 혹은 가족원, 하나, 혹은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치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Haley(1975)의 가족치료는 전략이론(strategy theory)을 배경으로 하였으며 이혼치료가 歴史的으로 이 年代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그의 이론은 한 가족의 문제는 힘(power)의 서열이 잘못되었기에 일어난 것이다. 치료자는 가족구조 내에 들어가 가족원과 치료자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가족 내의 모든 권위를 다 갖고 I-P(identified patient)를 몰지도 않고, I-P편에 들지도 않고, 개인 면접도 가족원 앞에서 하며, 가족원에게 문제를 설명

해술 필요도 없고 치료자는 권위를 주장하며 가족원이 복종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다. 1970年代 후반에 어린이 정신병이 많아지면서 어린이의 문제는 父母의 부부갈등에서 생기는 첫번째 증상이고, 다음의 증상은 부부中 어느 한 쪽이 문제들 갖게되고 그 다음이 부부 양쪽이 고통을 겪는 단계라는 학설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이 이론은 본 연구자의 연구(1975) 다섯개의 가족치료 사례 분석에서도 증명되었다. 그리하여 이론치료는 세번째 단계에 이른 부부 양쪽의 부부불화의 고통을 가진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本人 및 그 가족구조 내의 자녀를 위하여 시도되는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문제 자체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부정될 때 가족은 가장 심각한 상태이므로 이때도 치료를 받는 것이 요구된다.

C. 이론치료 현황

한국의 현실에서 실제로 이혼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훈련된 전문가가 있는 기관이 없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훈련하는 교육계획도 없다(Kressel & Deutsch, 1977). 따라서 카운슬링, 개인 및 가족치료나 노인정신의학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이혼가정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혼에서 치료적 도움을 받는다면 대부분 사사로운 것이다. 가정 법률상담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사실 그곳에서는 이혼보다는 화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 자체의 특이한 성질만큼 치료자의 개별적인 취급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혼치료에 대한 어휘자체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실정이다.

D. 정신적 이혼(psychic divorce)의 개념

이혼과정의 심리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체계적 첫 시도에서 Kressel 과 Deutsch(1977)는 정신적 이혼이란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정신적 이혼이란 한 개인의 개별화를 의미한다. 자기와 타인과의 구별이다. 즉, 정서적인 분리이다. 이 개념을 사용해서 평행적(parallel) 결혼과 열정적(passionate) 결혼을 구분할 수 있다(Kressel & Deutsch, 1977). 평행적인 결혼은 부모로부터 도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결혼하여 아이들이 아직 없고, 비교적 짧은 결혼생활을 하였으며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서적인 마음의 이혼이 비교적 쉽다.

이에 반해 열정적인 결혼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이혼치료들 원하는 부부들의 상당수가 열정적 유형의 결혼을 한 사람이다. 이런 부부들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해왔으며 아이들도 있고 결혼생활 중 부부간에 강하고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있었다. 치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유형의 부부가 이혼하려면,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한다 하더라도, 고통과 어려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정신적 이혼¹⁾이란 개념은 이혼과정의 이와같은 정신적 고통을 묘사하기 위한 용어이다. 또 이 개념을 사용하여 성공적 이혼의 기준을 삼을 수 있다. (Kressel & Deutsch, 1977)

註1) 열정적 결혼의 가장 큰 문제는 내면의 깊은 신경증적 요소로 인해 부부간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을 경우이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볼 때 아동기에 이성의 부모에 대해 가졌던 감정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현재의 배우자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열정적 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겪는 정신적 고통의 과정 즉, 정신적 이혼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Kressel & Deutsch, 1977). 즉, 이혼결정 전단계(predivorce decision period) 이혼결정단계(divorce decision period), 슬픔의 단계(mourning period), 재균형의 단계(reequilibration period)이다.

1. 이혼결정 전 단계

- a. 배우자에 대하여 긴장(tension)과 불만이 증가하는 단계로 똑 같기보다는 어느 한편이 더 심각하게 느낀다.
- b. 상호 관심을 회복하려고 친구나 친척의 도움을 받으며 화해를 시도한다. 이때 정신치료 도움도 찾고 서로 미친듯이 노력한다.
- c. 부부밀착에 명백한 소강상태이다. 부부 한쪽, 혹은 양쪽이 별거에 대한 절박한 심리적 준비로 애인 혹은 정부를 두기도 한다.
- d. 이 결혼이 외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에 당면했다. 내놓고 싸우고 변호사나 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아가기도 한다. 별거가 이 단계에 일어나기도 한다.

2. 이혼 결정 단계

- a. 이혼의 결정은 최소한 한쪽 배우자에 의해서 확고히 된다.
- b.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 하는 별거에 대한 불안과 공허가 생긴다.
- c. 독립불안(seperation anxiety) 때문에 상호의존적인 밀착이 새로워진다.

4. 나의 자존감이 너무 크게 저해 받을까 걱정된다.

e. 불가피한 이혼을 받아들인다.

3. 슬픔의 단계

이 시기에 이혼을 동의하는 기간이 계속 된다.

a. 파탄을 가져옴에 대한 자기비판과 죄의식, 실패감 등을 갖고 자기가치를 비하시킨다. 따라서 고독과 우울증이 심하다. 이혼으로 잃어버린 배우자에 대한 슬픔은 죽은 배우자에 대한 슬픔보다 어떤 면에서 더 어렵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살아있고 재결합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이다.

b.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심한 반면 균형을 찾으려는 의도와 함께 자신을 돌이켜 봄으로써 정서적 안정이 향상된다.

c. 결혼의 부정적인 면만큼 이혼의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슬픔에 빠진다.

4. 재균형 단계

결혼에 대하여 꼼꼼히 생각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이다. 만약 슬픔의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다음에 도입할 건설적 이혼의 기준에 대한 의논이 되는 단계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혼과정을 통하여 양쪽 배우자는 자신들이 자제하지 않은 감정 때문에 피로움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사랑이든 증오이든 그들의 행동은 실제 감정과는 다를 수도 있다. 결혼했을 때 밀월여행을 안 간 부부가 이혼했을 때 밀월여행을 가기도 한다.

F. 건설적(constructive)이혼의 기준

Kressel과 Deutsch(1977)는 이혼과정에 대한 최소의 체계적 연

성공적 이혼의 기준. 장애물,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이혼과 실패한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 결혼생활을 끝내는 데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 넓은 의미에서 건설적인 이혼은 심리적 이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심리적 이혼은 前배우자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자연스럽고 자녀들의 복지문제도 잘 정리되고 새로운 개체로서 각자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 전배우자에 대한 태도와 행동

건전한 결혼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이혼은 상호간의 협동이다. 양쪽 배우자는 그들의 결혼생활을 시작할 때 갈구했던 것 같이 그들의 관계들 심혈을 기울여 끝내야 한다. 이혼을 받아들임에 있어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히 재산 문제에 대한 타협이 있어야 한다. 타협은 정정당당히 동등하게 욕구의 건전한 수준에서 취해져야 한다. 한쪽 혹은 양쪽이 타협을 못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혼에 대하여 죄의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수동적인 연속은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고 이혼 후의 재적응을 보다 어렵게 만든다. 양쪽 배우자의 이혼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결혼생활을 청산하도록 돕고, 이루어진 합의를 지키도록 돕는다. 이혼에 있어 실제적인 문제는 정서적(emotional)인 것이다. 경제적 문제, 자녀의 방문문제, 그밖의 모든 문제(issues)는 건전한 이혼에서는 문제화되지 않고 정리된다. 성공적인 이혼을 하게 된 각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또 결혼에 대하여 회상할 때, 자신도, 상대방도, 비난하지 않고, 심리적 안정

전략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혼 후 바람직한 것은 상황이 요구될 때 前배우자와 협동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녀를 가진 부부에게서 최상의 것이다. 즉 「남편은 아이들의 양육비를 메덕지 않고 신사적으로 행동한다. 부인은 전 남편을 좋아하지 않고 야비한 놈이라고 말하기는 하나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사업을 의논하고, 자녀에 관해 의논하고, 매우 정중하다」고 말하는 이런 client는 성공적 이혼을 한 경우이다. 반면 많은 부부가 자녀가 없는데도 이혼 후 모든 관계(contact)를 유지하며 그리하여 이혼도 아니고 이혼 안한 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가장 나쁜 파괴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파괴적인 관계외에 이혼 후 전배우자와 대체로 기분좋은 상호작용을 갖고 우정이 성립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 일때 보다 더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성공적인 이혼인 경우다. 심리적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명백한 증거는 법정투쟁이 계속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이혼했으면서 심리적 이혼은 실제로 생기지 않아 분노는 상대방을 고소하는 形式의 싸움으로 계속된다. 그들은 잠자리에서 간음하는 대신에 법정에서 간음하며 orgasm에 도달하는 만족을 얻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치료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된다.

2. 아이들 문제

어린이에게는 男女性이 있는 父母가 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지적(cognitively)으로, 정서적(emotionally)으로 미숙하기 때문이다. 생물학적인 이유도 또한 그렇다. 또, 어린이는 양친과의 관계에서 심가

하의 어린이에게 심리적 타격 (trauma) 일 수 있다.

어린이를 의사전달자 (message carrier)로 이용하는 부모도 있다. 그렇게 안하려고 결심하고 말은 안하지만 어린이는 느낌 (feeling)을 포착한다.

부모사이에 정서적, 법적, 계렬라전은 어린이를 무기로 삼는 수가 많은데 이 경우 더욱 비참하고 어린이를 황폐하게 만든다. 배우자는 어린이의 부모인 前배우자를 공격하고 분노를 내뿜고 상대방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이 심리적으로 쉽기 때문에 흔히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건설적인 이혼은 前배우자들 사이에 부모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므로서 자녀에게 정신적인 상처 (injury)를 줄이게 한다. 특별히 부부는 어린이가 어느 한편의 부모를 좋아하면 다른 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부모 중 어느 한편의 반대없이 사랑할 수 있다고 느끼고 양쪽 부모를 모두 사랑하는 것이 나쁜 행동이 아니라고 느끼고 비상시엔 그들은 부모를 다 갖고있고 의지할 수 있다고 느끼어야 한다. 이혼 후 어린이는 양쪽 부모를 모두 필요로하고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가 어머니와 같이 있지만 아버지를 만나고 싶을 때 언제나 만나고 어린이가 아버지와 개별적인 관계를 갖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건설적인 이혼은 어린이가 불화속에서 경험한 뼈아픈 경험을 가능한 한 끝내고 그들이 이혼의 원인이었다는 환상이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한 부모를 가진 어린이는 누구나 그가 부모를 재결합시키려는 환상을 갖고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30년 전 이혼한 부모를 재

결합시키려는 환상을 갖고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30년 전 이혼한 부모를 재결합시킬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매장도 같이 하려는 예들 일상에서나 주변에서 듣고 볼 수 있다.

3. 自己(self)

건설적인 이혼의 최소한의 범주는 강하고 박절한 실패감과 자기 실망이 없는 것이다. 실로 성공적인 이혼은 자기이해, 새로운 만족스러운 교우관계, 자신의 개인능력에 대한 판단 등을 수반한 성숙이 있는 상태이다. 이혼한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보기 전에는 성공적인 이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다. 만약 그들이 신경성적인 유대(neurotic binds)를 갖고 있다면 이혼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고 그들이 건전한 관계를 형성한다면 그들은 건설적인 이혼을 갖게 될 것이다.

같은 실수를 두 번씩 하지 않게끔 자기이해를 돕는 특별한 구성요소가 통찰(insight)이다. 옛 결혼생활에서 역기능적 행동양식에 공헌한 자신을 평가하고 무의식적 갈등과 왜곡을 통찰하게끔 치료자가 개입하는 것이 이혼치료의 목적이다.

심리적으로 무용한 결혼을 절말짓는 직접적인 것은 개별적 능력에 대한 증가된 감정이다.

이혼과정이나 이혼 후 욕구와 타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숙이 필요하다.

G. 건설적 이혼의 장애물

성공적인 이혼의 장애물은 Kressel과 Deutsch(1977)의 체계적 첫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즉, 정신적 이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

특성과 법률가 같은 제 3자의 개입으로 인한 장애도 존재할 수 있다.

1. 결혼의 특성

어려운 이혼은 배우자 한 쪽이 염증나는 결혼을 마치려는 마음이 더욱 강할 때 가장 빈번하다. 특히 이혼에 대한 동기가 동등하지 않을 때 이혼소동이 일어나며 이혼 후 전망에 대한 실제적인 불균형으로 연결짓게 된다. 38才~40才의 이혼한 남자는 전문분야나 경제적 면에서 정점에 도달될 수 있다. 그런 경우 남자는 사회적 성적인 재적응으로써 쉽게 만족될 수 있으나 여자는 어린이 보호, 그밖의 양육문제로 그렇지 못하다. 이혼 후 사회적 경제적 환경은 곤란해진다. 이렇게 다른 양상의 수준이 새로운 배우자를 배척하게 하고 건설적인 이혼에서의 장애물이 된다. 남자들은 새로운 애인이 나타났을 때 결혼을 끝내고 싶어하고 여자들은 새로운 의식 즉 보다 충만되고 자율적인 수준의 생애를 원해서 결혼을 끝내고 싶어한다. 남자쪽에서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부인에 대한 심리적 안정성(psychological over dependence)과 자녀들과의 이별문제이다. 이혼에 대한 똑같지 않은 바램(desire)이 이혼을 어렵게 만든다. 보통 이혼을 보다 원하는 쪽이 배우자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낀다. 경우에 따라서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가족치료가 사실상 이혼치료일 수가 많다. 떠나려는 강렬한 욕망과 함께 생기는 죄의식을 갖는 한 쪽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동시에 결혼을 유지하려는 쪽에 의한 정착의 욕구는 상승한다. 이는 미지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의해 촉구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결혼을 마치려는 한쪽의 죄의식이 배우자에게 분노

도끼 교연거기도 안나.

배우자 한:쪽이나 양쪽이 오랜 불평속에 있을 때 예를 들면 Virginia woolf 부부처럼 싸움을 하며 상처를 경험한 부부에게서 또 배우자 한 쪽이 부부싸움에서 독선적인, 공격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한 쪽이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자세를 취할 때는 건설적인 이혼의 기회가 줄어든다.

파괴적인 이혼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요소인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쌍방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많은 부모들은 이혼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손상에 대한 죄의식을 갖는다. 죄의식은 배우자에 대한 방어적인 분노일 수 있고 혹은 어린이 양육의 뜻대없는 수락일 수 있다. 아이들은 배우자 쌍방에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법으로 배우자 서로서로에 대한 분노의 심리적 방문기회를 만들어 준다. 이 경우 진정한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을 없애기 어렵다. 이혼에서 돈이 있거나 없거나 복잡한 문제가 된다. 큰 돈은 복수의 표현으로 표현된다. 돈이 결혼에서 욕구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면 이혼과정에서도 계속 거론된다. 오나시스 잭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때때로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도 사용된다. 결혼에서 돈이 문제시되지 않았다면 이혼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제 3자의 관여

애인이나 정부가 불행한 부부를 증동질하고 친정어머니가 남편에 대한 딸의 불만을 터뜨리고 이혼에서 요인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보는 학자도 있으나 이혼과정에서 친척 친구의 영향은 약하다. 때로는 변호사가 건설적 이혼의 적일 수 있다. 배우자 한 쪽의 변호사는 다른

배우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도 한다. 그런 빈적 행동은 공정성을 위배할 뿐 아니라, 이혼치료에서 치료자와 client 사이의 신뢰를 해친다.

H. 진실적인 이혼의 전략

이혼치료의 전략에 대한 Kressl과 Deutsch(1977)의 최초의 체계적 연구 결과, 이혼치료시 두 가지 사항이 중요시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첫째는 내담자(client)가 이혼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돕고, 이혼, 혹은 별거의 합의점을 타협하게끔 돕는 것이다. 둘째, 목적을 위한 작전계획은 다르나 세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reflexive, contextual, substantive strategies이다.

Reflexive strategies는 치료자 자신이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해 나가기 위한 기초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이다. 즉, 주어진 상황아래서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기 위한 활동이다.

한편, contextual strategies와 substantive strategies는 실제적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

Contextual strategies는 이혼하려는 부부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협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반면에 substantive strategies는 치료자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과 해결방안을 갖고서 부부간의 견해차이나 갈등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 협정을 추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세 가지 전략은 치료자의 활동방식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가 마음먹은 목적에 의해서 분류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1. Reflexive strategies

보는 것이다.

- a. 치료 초, 치료자는 client의 신뢰와 비밀보존을 치료의 중심으로 삼는다.
- b. 그리고 결혼상태를 정확히 진단한다. 많은 client가 자기진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부부 중 어느 한편이 결혼생활을 그만 두려고 도움을 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는데 어느 한쪽은 결혼을 유지하려할 경우 client의 오진이 많다. 치료는 사실상 이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심리적인 문제이고 어려운 결정이 드디어 되면 법적인 문제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그들의 발언 없이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치료자라도 알 수 없다. 전문가는 부부 쌍방에게 예리한 범주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을 하는데 이것이 이혼치료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결혼진단 초기과정에서 처음에 결혼 상호작용을 단지 관찰하는 것이 수동적 전략이다. 치료자의 성향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배우자, 자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시도하기도 한다.
- c. 치료자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정성을 잃는 것이 치료자에게는 가장 심각한 실수이다. 이혼으로 향하든, 결혼으로 향하든 두 양쪽 배우자에 대하여 공정해야 한다.

2. Contextual strategies

치료자가 개입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주도록 시도되는 것이다. 이 전략의 목적은 부부가 결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하게

함이다.

reflexive strategies가 이혼 결정 전 단계에 쓰인다면 contextual strategies는 이혼 결정 단계와 정착 단계에 적용된다고 보겠다.

a. 이혼 결정 단계

- ① 정서적 긴장수준을 내리게 한다 : behavioral tactic. 긴장과 증오의 근원은 배우자 한쪽, 혹은, 양쪽이 서로 쌍방에 의해 희생됐다고 느끼는 데 있다.
- ② 분노의 실제적 근원을 명료화한다. 치료자가 개입하여 이 근원을 명료화하면 부부간의 소동의 열기는 식는다.
- ③ 타인으로부터 |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한다. 보통,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들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부부관계에 내가 무엇을 공헌했는지들 이야기하도록 한다.
- ④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 ⑤ 보다 깊은 역동적인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실제적 문제에서 장애물을 제거한다.
- ⑥ cognitive desensitization을 사용하여 불안을 내리게 한다.
- ⑦ 정서적 긴장수준을 내리게 한다 : structural tactic. 파괴적인 증오의 수준을 내리기 위해 치료자는 치료시간을 재조정, 신체적 별거, 변호사와의 접촉을 금지시킨다.
- ⑧ 치료시간을 조정한다 : 부부치료 및 co-therapy.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배우자와 치료시간에 싸운다. 배우자에 대한 방어적인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다 덜 정신과적인 치료방법인 co-therapy는 안락한 치료 분위기를 이루게 한다.

⑤ 신체적 별거를 시킨다.

육체적 폭행이나 언행의 증오가 극심하여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치료시간이나 일상생활에서 별거를 시킨다. 치료자는 폭력적인 남편에게 치료를 위하여 가출을 명령하거나 별거를 협상하게끔 한다.

⑥ 변호사와의 접촉을 조정한다.

이혼에서 변호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건설적인 치료는 이루어질 수 없다. 변호사는 이혼에서 파괴적인 갈등의 주근원이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client의 변호사와의 접촉을 단속한다.

⑦ 치료비는 선불로 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⑧ 부부사이의 역기능의 근원을 명료화한다.

현재의 부부상호작용에서의 양상 각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부부불화의 역사적 근원을 캐내는 데 초점을 둔다.

⑨ 합동치료 (conjoint sessions), 부부치료 (marital groups)

그리고, audio나 video의 play-back의 사용 등으로 현재의 역기능 양상을 이해시킨다. 부부치료에서 치료자가 한 배우자에게 30분간 관심을 집중하고 그후 다른 배우자를 불러 아직까지 본 것을 이야기시킨다.

⑩ 부부갈등의 역사적 근원을 추구한다. client와 치료자와의

토론에서 부부역기능의 역사적 근원이 밝혀진다.

이혼치료에서 이혼결정 단계와 정착 단계 사이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치료자는 그들의 정착을 위하여 어떤 의미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가?

- ① 협상을 위한 바람직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치료적 개입을 함에 있어 정서적 긴장수준을 내리는 것은 기본적인 전략이다.
- ② 협상을 구성 시도한다.
- ③ 이혼이 결정됐을 때 변호사와 client를 중개한다.

3. Substantive strategies

a. 이혼결정 단계 : 이혼에 대한 동기수준을 맞춰준다. 보다 성공적인 이혼은 배우자 양쪽이 똑같은 시점에서 잘라설 준비가 똑같이 되는 것이다.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먼저 준비가 되면 이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버려지는 다른 편에 대해 죄의식을 갖게되기 때문이다. 양쪽이 똑같이 준비되게 하는 것이 치료자의 과업 중의 하나이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 어느 쪽도 버려진다고 느끼게 되지 않는다.

- ① 이혼에 대한 방해되는 마음가짐을 약화시킨다. 이혼에 대한 현실적 혹은 비현실적, 또 다양한 두려움을 치료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함으로써 약화시킨다.
- ② 치료자는 이혼의 입장을 옹호한다.
- ③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게 한다.
- ④ 별거를 결정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못하면 건설적인 이혼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client에게 생활수단의 기술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 치료자의 과업이다. 그런 기술은 배우자에 대한 심리적인 독립을 가져오게 한다.

- ⑥ 이혼 결정에 대한 두려움은 아주 친한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으로 약화된다.

b. 정착 단계

- ① 이혼하는 부부는 정서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결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생을 계획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방문이나 생활비 문제를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요구하거나 무작정 깎으려 할 때 그 근거를 치료자는 질문함으로써 현실에 직면케 한다.

- ② 양보와 타협을 하도록 한다.

- ③ 자녀들의 복지에 관심을 두도록 한다. 어린이를 대신해서 치료자는

- ④ 부모의 싸움에서 어린이가 인질 역할을 하게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아이들 앞에서 심하게 싸우거나 배우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어린이들 인질 역할로 모는 것이다.

- ⑤ 어린이의 후견인 문제가 협상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 배우자 사이에 싸움의 열기가 식기 전까지는 어린이의 후견인 문제가 결정되기 어렵다. 치료자가 치료시간에 아이들을 불러서 후견인 문제, 한쪽 부모 방문문제에 관한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참작해야 하며 아이들의 양육상 필요한 경제적 문제들 관심사로 올려 놓는 것이 치료자의 할 일이다. 그리고 후견인

해 놓을 필요가 있다.

- ㉞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들에게 느끼는 죄책감을 털어버릴 목적으로 아이들과 부모와 같이 치료시간을 갖는다.
- ㉟ 이혼 후에 대한 준비로서 : 이혼 후 아이들의 정규적인 방문 시 양쪽 부모가 동시에 있거나 date 양상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재결합의 환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고 아이들의 예민한 감수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Ⅲ.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사항을 추출할 수 있다.

이혼이 성공적이라면 정신적 이혼 즉, 정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어린이의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이혼의 주요한 장애물은 정신적 이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 성공적인 이혼을 이룩하도록 치료자가 돕는 전략은 3가지임이 밝혀졌다.

즉, 치료자가 이혼하려는 부부들과 의사소통(rapport) 관계를 수립하는 reflexive strategies, 부부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contextual strategies, 치료자가 판단한 기준에 맞게 부부간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협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substantive strategies 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論議가 갖는 문제점과 미래의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정신적 이혼이란 개념이 이혼과정에 공통적인 것인가? 아니면 신경증적 만족을 배우자에게서 기대하고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불확실하다. 이혼에 대

답하기란 불가능할 것 같다.

성공적 이혼의 기준도 그 일반성이 문제시될 수 있을 것 같다. 성공적 이혼의 기준이 설정되어야만 그 기초위에 이혼치료의 영향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혼치료의 분야는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직 미숙한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살핀 考察이 비록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기초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의사결정시 치료자의 공정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문제점과 치료자가 이혼기간을 어느 정도로 조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일단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치료자에게 필요한 훈련계획에 대해 앞으로 광범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즉 전통적 심리치료의 기술과 법률가등의 기술이 어떻게 조항될 것인가의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論稿에서는 이혼하려는 부부들을 심리적으로 돕는 개념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이혼 후의 치료적 도움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것이 제한점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安 香 林 "가족치료를 통한 가족역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 사회복지 연구소, 1975.

- 安香林 "자녀를 키우는 목표", 아동복지, 폴트 아동복지회, 1979.
가을, Pp18-19.
- Bell, J. E. "Recent Advance in Family Group Therapy", J. Child Psychology, psychiatry, 1:15(1962)
- Bowen, M., "A Family Concept of Schizophrenia", The Etiology of Schizophrenia, ed, D.P. Jackson, New York: Basic Books, 1960.
- Brown, E., "Divorce Counseling," Treating Relationship, Iowa: Graphic publishing, 1976.
- Goode, W. J., Women in Divorce, New York, Free press, 1956.
- Haley, J., "Why a Mental Health Clinic Should Avoid Family Therapy," J. Marriage & Family Counseling, 1:3-13.(1975)
- Haley, J., "Marriage & Its Consequences", Uncommon Therapy,
- Minuchin, S., "A Structural Approach," Families and Family Therap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74.
- Kenneth Kressel & Morton Deutsch, "Divorce Therapy," J. Family Process, Dec. 1977.
- Pollak, Otto, "Social Determinants of Family Behavior", Case Work with Families & Children, ed; Eileen Younghusband, Chicago University Press, 1970.
- Satir, Virginia, Conjoint Family Therapy, California: Palo Alto, Science & Behavior Books, Inc., 1964.
- Stamm, Isabel, Family Therapy, [n.p.], [n.d.]

Recently double number of divorce problem occurred than a scant ten years. Therefore the theory of divorce therapy has improved by developing of the general systems theory is that focus on; How the family is related to community, and how the systems interact with each other in the family as a unit. The purpose of divorce therapy is to help the family members have adjustment ability instead of a pathological defense mechanism.

In broadest sense, a constructive divorce is one in which the process of psychic divorce has been successfully completed. The psychic divorce has occurred when certain conditions prevail with regard to the attitudes and behavior of the former spouses toward one another, the welfare of children, and the level of functioning of each of the ex-mates as a newly single person.

Divorce therapy has two distinct foci; helping clients decide whether or not to divorce and assisting in the negotiation of a final divorce (or separation) agreement. The tactics by which these two goals are pursued are extremely varied, but all of them may be subsumed under the reflexive, contextual, and substantive strategies.

practitioners. It seems likely that we are in a transitional stage in the emergence of this therapeutic specialty. It is my belief that there is considerable need at present for extended discussion among marital and family therapists, the lawyer and the accountant for effective intervention for constructive divorce.